건강 칼럼

세포충전건강법은 왜 디톡스가 되나

심 영 기
연세에스의원 원장

의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 대사질환, 관절열 등 만성질환에 시달린다. 잘못된 식단, 운동부족,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장 흔한 요인이며, 이로 인해 세포대사가 원활하지 못해 세포의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공통점을 띠게 된다.

세포는 에너지가 없으면 죽는다. 에너지의 기본 단위는 ATP이며 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생성된 에너지는 산화환원(리독스) 반응에 사용된다. 리독스 반응은 전자를 빼앗기는 방전 과정인 산화와 전자가 보충되는 충전 과정인 환원의 연속이다.

세포가 방전되면 혈액은 물론 혈액의 4배가 되는 림프의 순환이 안 돼 세포 안팎에 림프슬러지(림프찌꺼기)가 축적된다. 림프슬러지는 세포 주위에 염증반응을 일으켜 섬유화, 석회화 반응을 초래하는 악순환 고리의 주범이다.

세포는 이차전지처럼 충전과 방전을 되풀이한다. 방전이 되면 통증, 만성병을 초래한다. 방전 상태가 오래 지속돼 산화스트레스에 노출되면 난치병인 자가면역질환, 암 발생의 원인이 된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하는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수면제 등 약물치료는 림프슬러지를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

이들 약이 통증과 열증, 불면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세포의 전자흐름을 차단해 자연치유를 방해하게 된다.

고혈압, 당뇨병, 통풍(고요산혈증)과 같은 대사질환 조절에서 혈압, 혈당, 요산을 낮추는 필수적인 약물치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들 목적 이외의 약물 장기복용은 세포 및 조직의 기능 저하와 위축을 초래할 뿐이다. 결국에는 자연회복력 또는 면역력이 저하돼 고질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지난 20여 년간 4000여명의 전 세계 림프부종 환자를 치료해왔다. 주로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수술 후 나타나는 난치성 림프부종의 발생 원인으로 '림프슬러지'에 주목했고, 연구가 깊어져 림프슬러지가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음을 터득하게 됐다.

림프슬러지를 약물 부작용 없이 분해하여 배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장기간 고민해서 얻은 성과물이 '세포충전건강법'이다. 기존 방식과 다른 신개념 전기치료로 'electric cure'의 약자인 '엘큐어(ELCURE)' 세포충전요법이라 명명했다.

엘큐어 세포충전요법은 2차전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인체 세포에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해 충전시키는 치료법이다.

세포충전을 위해 1500~3000V의 고전압을 정전기 방식으로 환부에 흘려보낸다. 전압은 높지만 전류의 세기가 마이크로암페어(㎂)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며, 고전압이라서 세포 내 전기충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기존 재활의학과나 한의원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경피적 전기신경자극 치료기(TENS)는 동전기로서 전류에너지가 피하 심부로 침투하지 못하고 세포충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필자는 세포충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 전기 물리치료기기와 다른 전기적 성질을 찾아 기존과 완전히 다른 치료기기를 설계해 '엘큐어1000'을 개발했다. 2023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록을 마쳤다.

음전하가 세포 안에 집적돼, 즉 전위가 올라가서 세포가 충전되면 세포막, 세포내 미토콘드리아, 림프계의 순환기능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전위 저하로 발생한 만성질환이나 통증이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세포 방전으로 정체돼 끈적끈적하게 세포 안팎에 축적된 림프슬러지가 이온분해돼 배출되면서, 림프순환이 향상된다. 전기에너지는 세포의 미세순환을 증가시켜 영양소 보급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다.

외부에서 전기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세포에 부족한 ATP를 보충하는 것과 같다. 충전 덕분에 세포의 ATP 생산활동이 휴식기를 얻게 되면 세포의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얻을 수 있다. ATP 공급에 여유가 생기면 손상된 조직의 복구 작업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 세포막의 이온투과율 향상, 세포분열 활성화에 따른 세포재생 등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다.

엘큐어리젠요법은 방전된 세포가 전기를 흡수하는 전인현상(電引現象)과 인체에서 나타나는 전기마찰현상(電氣摩擦現象, 정전기현상)으로 세포의 전기충전도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통증유발점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고,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위중도를 가늠할 수 있다.

엘큐어리젠요법은 만성질환의 근본치료법이자 혈당, 요산, 노폐물에 찌든 인체 세포의 '디톡스'(해독요법)이 될 수 있다. 만성질환의 종류, 위중도와 발병기간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가 다르지만 필자의 임상경험에 비춰보면 주 1회 20~40분씩, 총 20회가량 반복적으로 세포충전하게 되면 호전되는 사례가 80% 정도에 달했다.

다만, 뇌졸중(중풍) 후유증, 신경마비 환자들은 매일 1시간, 불치병인 자가면역질환이나 암환자인 경우에는 세포전기의 방전 속도가 매우 빨라서 한번에 30분씩 하루 3회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좌골신경통, 족저근막염, 테니스엘보, 골프엘보 같은 근골격계질환의 통증제어에서 두루 효과가 좋았고 간, 췌장, 위장 질환에서도 치료결과가 준수했다. 엘큐어리젠을 이용한 세포충전 건강법은 세포에 신선한 전기적 자극을 가해 만성질환에서 회복력을 불어넣어주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갱단 폭력에서 벗어나자"

10일(현지시각) 아이티 포르토프랭스의 켄스코프 지역 주민들이 말에 짐을 싣고 산을 넘어 갱단 폭력으로부터 대피하고 있다.

"트럼프, 지난 대선서 해고된 대통령"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0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 토론하고 있다.

사 설

병원 응급실 과부하

병원 응급실 과부하가 심각하다. 전공의가 사라진 현장에서 전문의 수마저 줄어 남은 의료진이 감당하기가 버거운 상황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현재 11명이다.

당초 14명의 전문의가 근무했으나 반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 속에서 이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남은 11명 가운데 4명 또한 격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냈으나, 병원 측의 설득 끝에 이들 모두 사직을 보류하고 일단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전공의의 빈자리를 전문의 혼자 채우다 보니 여러 환자가 들어올 경우 업무 분담이 이뤄지기 어렵다. 당직 근무 또한 늘어난 탓에 피로도가 상당하다. 특히 아주대병원 응급실의 경우 경기 남부지역의 중환자 치료 거점으로 꼽히는 만큼 의료 공백이 발생할 시 파장이 더욱 크다.

이 병원 응급실에는 일평균 110~120명의 환자가 들어오고, 이 중 60~70명은 성인인데 이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응급 환자의 중증도 또한 전국에서 1~2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의정 갈등 이후 이 병원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 수가 전보다 줄어들기는 했다. 하지만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해 전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이 병원 소아응급실의 경우 일부 전문의가 근무를 중단하면서 수요일과 토요일엔 초중증 환자만 받는 '축소 진료'를 하고 있다. 응급실은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 치료 난도가 상당히 높은 경우도 많다.

충분한 의료진이 확보돼야 각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기약도 없으니 의사들이 속속 사의를 밝히고 있다.

북한 잠수함 국제기구 등록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해사기구에 잠수함 13척을 등록했다가 갑자기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등록된 잠수함 가운데에는 지난해 전술핵 탑재를 예고한 김군옥영웅함도 포함됐다.

그러나 갑자기 삭제한 배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9월 수중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전술핵 잠수함이라며 북한이 공개한 것은 '김군옥영웅함'이다. 이 잠수함은

발사관 10개를 가진 특이한 구조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 전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화려한 진수식을 열었다. 북한은 이 잠수함을 공개한 지 거의 1년 만에 국제해사기구에 등록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김군옥영웅함 외에 재래식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가 가능한 8.24 영웅함과 소형 잠수함인 상어2급 등 모두 13척이 함께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일반 군함이 아닌 잠수함을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70여 척에 이르는 잠수함 가운데 13척만 등록했는데 갑자기 삭제하면서 그 배경이 궁금하기 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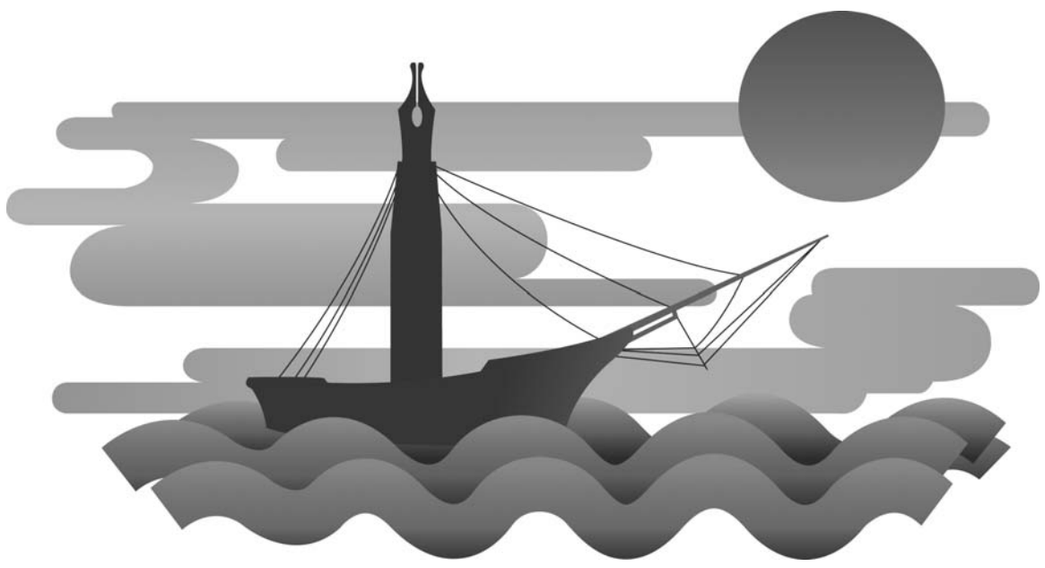
3천 톤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김군옥영웅함으로 동해 먼 바다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술핵 시험사격 훈련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다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밖으로 나가서 미국 알래스카나 본토를 겨냥해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또 아직 개발이 덜 끝난 김군옥영웅함을 등록했다가 성능 시험이 늦어질 경우 오히려 의심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삭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잠수함 외에 기존에 등록됐던 일반 군함도 모두 삭제했다. 오락가락 행보에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